

지구촌 물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제7차 세계물포럼

- 4월 12~17일 대구·경북에서 개최, 29개국 200여 기관·기업 참여 예정 -

소성환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지구촌 최대의 국제 물 행사

벌써 3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제7차 세계물포럼의 시작은 2011년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물위원회(WWC) 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이 7번째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올해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올림픽 유치처럼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물포럼 유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쓴 3년 간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에서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을 전후로 하여 3년마다 일주일 간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이다. 세계물포럼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물 전문가들이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정치적 선언문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적 차원에서는 물 엑스포도 함께 개최되어 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선진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인 물의 미래,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세계물포럼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학술 행사와는 상당히 다르다. 세계물포럼은 각국의 고위급 인사가 다수 참석하고,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NGO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2011년 개최지가 선정된 이후, 세계물포럼 준비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 세계물위원회와 기본협약서(Framework Agreement) 체결(2012. 2), 「2015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제정

(2012. 12), 조직위원회 구성(2013. 4) 등 행사 준비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뼈대를 세우는 일과 같았다.

‘실행’과 ‘과학기술 과정’을 키워드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13년 5월, 제7차 세계물포럼의 키포프 회의가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키포프 회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회의로서, ‘제7차 세계물포럼’이라는 대작품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어떤 색을 입혀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자리였다. 키포프회의를 통해 제7차 세계물포럼은 ‘실행(Implementation)’을 기치로 할 것임을 대외에 공포하게 된다. 즉, 그동안의 물 관련 국제 회의와 전차 포럼의 결과가 구호에 그쳤던 점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7차 세계물포럼의 프로그램을 ‘실행’의 기치 위에서 설계해 나가기로 그 방향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전차 포럼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제별 과정, 지역별 과정, 정치적 과정의 기본 포맷을 살리면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과학기술 과정은 그야말로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살려 물 관련 과학기술과 정보가 국가간에 활발히 교류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또한,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수자원 관리 선진국 간의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물 분야의 실행 성과와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과학기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선진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 물산업의 첨단화 및

세계 시장 진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국내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되리라 생각한다.

‘실행’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에는 과학기술 과정의 신설 외에 포럼의 핵심 가치 ‘실행’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세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실행’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포럼에서 논의된 실천 과제에 대한 추진 로드맵의 수립과 실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Action Monitoring System), 그리고 포럼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 수립된 추진 로드맵의 이행을 약속하는 ‘대구·경북 실행 합의서’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의 모든 세션은 논의 결과가 공론에 그쳤던 이전 포럼을 반성하며, 각 세션별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가시적인 목표로 한다. 이렇게 각 세션에서 도출된 실천 과제는 인과 구조,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 시간대 순으로 재구성되면서 최종적인 로드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실천 과제에 대한 추진 로드맵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실천 주체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금번 포럼의 결과도 구호에 그친 전차 포럼과 같이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Action Monitoring System의 운영과 ‘대구·경북 실행 합의서’의 채택이다. Action Monitoring System은 추진 로드맵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환류하며, 그 과정 가운데 도출되는 교훈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툴(tool)이다. 포럼 이후, 각 세션에 참여한 기관들이 스스

로 실천 과제의 진행 정도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것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교훈을 함께 학습하고 공유함으로써 7차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차기 8차 세계물포럼 이전까지 계속되며, 그 최종 결과는 8차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제7차 세계물포럼의 폐회식에서는 세션의 모든 참여 기관들이 추진 로드맵의 수립과 Action Monitoring System 운영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함께 약속하는 '대구·경북 실행 합의서'를 채택하여,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의 '실행'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는 행사가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 밖에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 관련 우수 정책과 기술에 대한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지구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정책 사례(water showcase)와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해결 방안(world water challenge)을 발굴하고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워터프라이즈를 수여함으로써, 실증적인 사례 중심의 물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그리고 엑스포도 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의 컨셉에 맞게 디자인될 예정이다.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의 엑스포에는 총 29개국 20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17개의 국가관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관은 각국의 물 관련 정책 및 산업 역량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물 정책·기술 올림픽' 컨셉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도 국토부, 환경부, 외교부, 농림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물 관련 정부기관 합동으로 '한국관'을 조성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물산업의 미래와 제7차 세계물포럼

이렇듯 제7차 세계물포럼은 지구촌 물문제 해결에 있어 '공론을 넘어 실행'이라는 컨셉 하에서 주요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보폭의 발걸음이지만, 오늘의 '실행'을 향한 첫걸음이 전 세계인에게 10년,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는 지구촌 물문제 해결을 향한 새로운 전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정부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제7차 세계물포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7차 물포럼이 급성장하는 세계 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개척하는 활로가 되어, 국내 물산업을 진흥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국내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7차 세계물포럼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7차 물포럼의 프로그램, 엑스포 등을 통해 우리 국내 물기업의 선진 물 기술이 충분히 소개되고 홍보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고위급 참석 국가 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세계물포럼이 끝난 이후에도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물포럼 개최 후 자국 내 물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자국을 물 강국으로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도 물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내 기관들을 중심으로 물 파트너십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물 관련 업계와 연구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CERIK